

2020 년 5 월 31 일 “오순절의 축복”(행 2:1~13)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순절(Pentecost)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지 50 일째, 승천하신 지 열흘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1] 오순절의 의미

구약 때부터 지키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때를 유월절로 지키고 이 날로부터 50 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맥추절 - 보리 첫 수확)로 지켰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풍성한 첫 수확을 기대했던 때였습니다. 풍요로운 새 삶의 열림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 때 주신 말씀

행 1:4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행 2:1 - 오순절에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날 이후, 세상에 새 역사가 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하여 확장되는 전환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은 예수님의 오심과 병행을 이루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일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열매가 맺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마차의 두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오심에 관한 의미를 말해주는 구약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2] 바벨탑 심판

이 사건의 위치: 창세기의 1-11 장은 하나님의 창조(1~2 장)와 이어지는 타락의 사건들을 열거합니다: 3 장 - 아담/하와의 불순종; 4 장 - 가인의 살인; 6~9 장 - 노아 때 홍수 심판; 11 장 - 바벨탑에 대한 응징(심판) 사건

이 네 사건은,

- (1) 사람이 창조의 본연의 세계를 잃어버렸음(창조의 의도와 방향성)을 말해 줌
- (2) 하나님은 매 사건마다 개입하셔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하심
- (3) 인간의 역사에는 창조-타락-응징(심판)-회복이라는 4 개의 근원적 요소를 지님.

여기서 성령의 오심과 관련하여 보고 싶은 것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 11:1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여서 모두 같은 말을 썼다’ →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뜻함.

그래서 일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기술 발전이 빨라졌으므로 그들은 높은 탑을 쌓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들 이름을 날리자고 했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내세워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다는 교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 멸망으로 가고 길이었습니.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흠으셨습니다. 그들을 응징하시는 동시에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말을 뒤섞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창 11:7). 이것이 사람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통해 오랫동안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과 노력 끝에 마침내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4 절 ‘...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했다’.

6 절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했다’.

**8 절** '우리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리오?

**11 절** '여러 나라 출신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그러면 어떤 중대한 일을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언어가 통하게 하셨을까요?

**[3]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고 행하게 하심**

**11 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입니까?  
-> "(창조하시고 타락 후)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구주(예수님)가 오셨고 그분의 죽으심/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나라를 함께 소유하고 누린다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 모든 인류에게 열리도록 역사의 전환을 일으키셨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시고 완성을 향한 일을 시작하신 일에 대해 서로 교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을 알 수 있습니다.

(1) 구원 사역의 핵심이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의미와 목적을 듣고 알게 하십니다. 그 목적은 창조의 의도와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또한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우리 교회 비전 문구를 기억해주세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3 위의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말씀으로 주관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은 성자 하나님의 사역과 삶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부활생명)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알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일 속에서 존재하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 성령님께서 교통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성도님들 삶 속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볼 것>**

1.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오순절의 중요한 강조점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말로 적어봅시다.
2. 오늘 본문 11 절, '하나님의 큰 일'이란 내게 어떤 의미이며, 이 세상에는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 '큰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될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